

Report 30호 || 2021년 6월 24일

"한국인 사회의식 심층부석 보고서"

'호감' 관련 국민의식 집중 분석

■ 우리 사회 포용성 평가

_ 국민들, 우리 사회, '폐쇄적이고 차별적'이라고 생각 ※ 국민 포용력 조사결과 : 우리 국민들, 포용력 약해

■ 사람에 대한 '호감' 요인 분석

- 호감 요인, '성격.태도' + '직업.직장' 가장 높아
- 계층별 개인적/사회적 요인 영향력 분석
- 남녀 2030세대, '호감' 느끼는 요인 거의 비슷
- _ 4050세대, 남녀는 다르지만 남자, 여자끼리는 비슷
- 60대이상 연령층, 남녀 비슷한 양상

■ '호감'에 대한 사회심리적 접근

- _ '사회적 요인' 중요성 확인 위한 실험 조사
- 남성 사진, 긍정적 설명 추가 시 호감도 상승
- _ 여성 사진 역시 긍정적 설명 추가 시 호감도 상승
- ※ 사회적 차별 조사결과 : 국민들, 사회적 요인 중시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6월 4일(금) ~ 6월 6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3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04%p

가 중 치 기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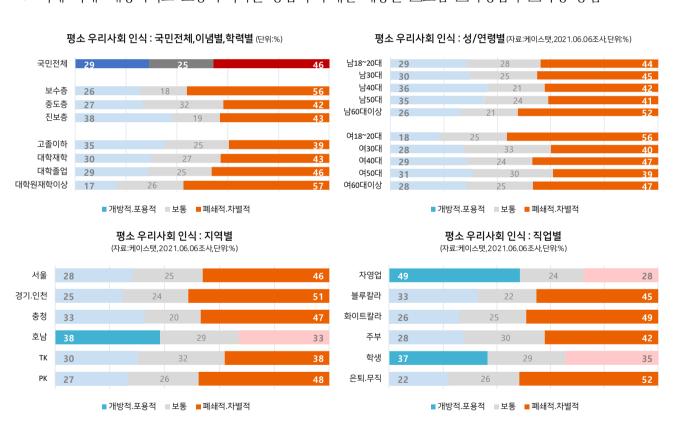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우리 사회 포용성 평가

□ 국민들, 우리 사회, '폐쇄적이고 차별적'이라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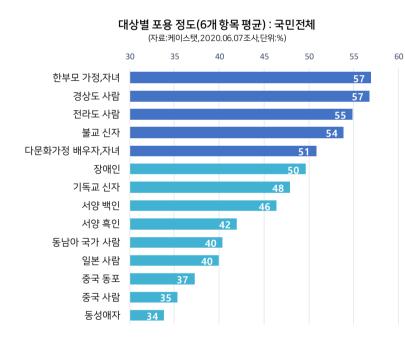
- 우리 사회에 대한 평소 생각을 질문한 결과 국민들 다수는 '폐쇄적이고 차별적이다'고 응답함
- '폐쇄적이고 차별적이다' 46% vs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다' 29% vs '보통이다' 25% 순으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폐쇄적이고 차별적'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보수층 △대학원재학 이상 △남자 60대이상 △여자 18~20대 △경기 인천지역 △은퇴 무직자 등임
- '폐쇄적이고 차별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계층은 대학원재학 이상 고학력 계층임(57%)
- 이에 비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호남 △자영업자 △학생 등임



- ☑ 국민 다수는 우리 사회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기보다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사회라고 생각함
- ☑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이러한 인식이 강한 것이 특징적인데, 이는 계층상승의 강력한 수단으로 작동하던 학력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지금의 이유를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사회'에서 찾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 사회가 폐쇄적이고 차별적이 될수록 계층상승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분석임
 - : OECD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계층상승 사다리'가 부러져 있으며, 저소득 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 동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5세대로 추정함
 - : 한국의 경우 이보다 조금 더 긴 5세대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자료 : OECD, 2018년,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 국민 포용력 조사결과 : 우리 국민들, 포용력 약해

- 케이스탯은 지난 2020년 6월 7일, 우리 국민들의 포용력 정도를 조사한 바 있음
- 한국 사회에서 배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일컬어지는 14개 대상을 선정하고, 국민들은 이들 대상들에 대해 어느 정도 포용적인지 조사한 결과. 어느 대상도 평균 60%를 넘지 못함
- "선생님께서는 아래 각각의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선생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실 의향이 있는 사항 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라는 질문 아래 6개 항목을 제시함
- ① 같은 동네에 살아도 괜찮다. ② 옆집에 살아도 괜찮다. ③ 내가 속하 친목모임에 가입해도 괜찮다. ④ 같은 직장에서 동료로 일해도 괜찮다. ⑤ 상대방이 친구가 되기 원하면 친구사이가 돼도 괜찮다. ⑥ 우리 가족과(또는 내가) 결혼해서 가족이 돼도 괜찮다
- 총 14개 대상 중 6개 항목 평균이 가장 높은 대상은 '한부모 가정,자녀'와 '경상도 사람'이 공히 57% 로 높게 나타남
- 다음은 '전라도 사람'(55%), '불교 신자'(54%), '다문화가정 배우자,자녀'(51%) 순으로 조사됨



6개 항목 관련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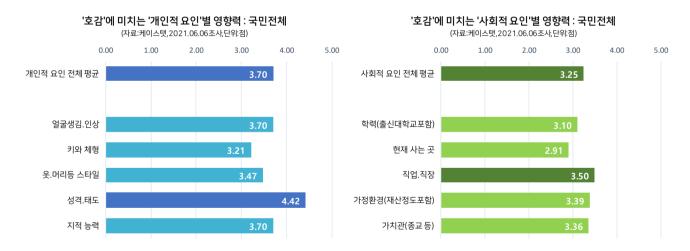
- "선생님께서는 아래 각각의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선생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실 의향이 있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같은 동네에 살아도 괜찮다
- ② 옆집에 살아도 괜찮다
- ③ 내가 속한 친목 모임에 가입해도 괜찮다
- ④ 같은 직장에서 동료로 일해도 괜찮다
- ⑤ 상대방이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친구사이가 돼도 괜찮다
- ⑥ 우리 가족과 (또는 내가) 결혼해서 가족이 돼도 괜찮다

- ☑ 대상별/6개 항목별 응답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들은 '같은 동네'에 살거나 '직장 동료', '친구 사이'가 되는 것은 괜찮지만 '내 친목 모임'에 가입하거나 '우리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상당함
 - : 대부분의 대상에 대해 사회적 관계는 형성·유지할 수 있지만, 나만의 '사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내 친목 모임'과 '우리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폐쇄적인 태도를 보임
- ☑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 대해 '폐쇄적이고 차별적'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폐쇄적이고 차 별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임
- ☑ 위 조사결과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7호 『차별과 배제 관련 국민의식 분석』(2020년 6월 11일자) 참고

▶ 사람에 대한 '호감' 요인 분석

□ 호감 요인, '성격,태도' + '직업,직장' 가장 높아

- 사람에 대한 '호감'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개인적 요인 중에서는 '성격, 태도', 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직업·직장'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선생님은 평소 호감이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호감이 가는 사람의 경우, 호감이 가도록 하는데, 다음 각각의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후 영향력을 5점 만점으로 응답토록 한 결과임
- 개인적 요인에서 '성격. 태도' 다음으로는 '얼굴생김.인상'과 '지적 능력'이 공히 3.70점으로 뒤를 이었고. '옷, 머리 등 스타일'(3.47점), '키와 체형'(3.21점) 순으로 나타남
- 사회적 요인은 '직업·직장' 다음으로 '가정환경(재산정도 포함)'(3.39점). '가치관(종교 등)'(3.36점). '학력(출신대학교 포함)'(3.10점), '현재 사는 곳'(2.91점) 순으로 조사됨
- 또한, 개인적 요인 전체와 사회적 요인 전체의 '호감' 영향력을 비교하면, 개인적 요인이 좀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개인적 요인 전체 평균'은 3.70점이고, '사회적 요인 전체 평균'은 3.25점임



- ☑ 각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정 사람'에 대한 동등, 포용, 호감(반대 측면에서는 차별, 배제, 혐오)의 감정을 만드는 주된 요인은 그 '특정 사람'의 사회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함
 - : 예를 들어 미국 사회에서의 흑인 차별은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이 주된 요인임
- ☑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만을 놓고 볼 때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본 보고서 후반에 있는 「'호감'에 대한 사회심리적 접근」에서 다룰 것임

□ 계층별 개인적/사회적 요인 영향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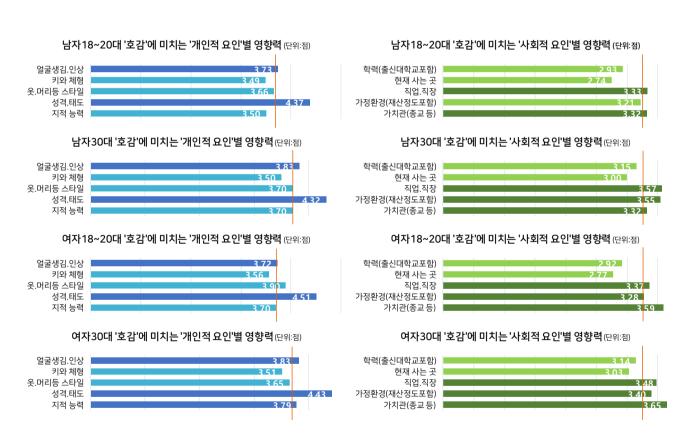
- '호감'에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 가로 축은 '개인적 요인' 평균값이고, 세로 축은 '사회적 요인' 평균값임
- 국민전체 값(3.70점, 3.25점)을 기준으로 4분면으로 나눠 계층별 위치를 살펴보면.
 - ① 개인적 요인 중시 + 사회적 요인 중시 : △보수층 △400만원 이상 소득층 △남자 30대 △여자 3050세대 △서울 △화이트칼라. 자영업
 - ② 개인적 요인 증시 + 사회적 요인 덜 중시 : △진보층 △남녀 18~20대 △경기.인천, PK △학생
 - ③ **개인적 요인 덜 중시 + 사회적 요인 덜 중시** : △중도층 △400만원 미만 소득층 △남자 40대. 남자 60대이상 △호남 △블루칼라. 은퇴.무직자
 - ④ 개인적 요인 덜 중시 + 사회적 요인 중시 : △남자 50대 △여자 60대이상 △충청. TK △주부



- ☑ '호감'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요인의 계층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함
-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이 다른 성향에 비해 사회적 요인을 중시함
- ☑ 성/연령별로는 남녀 18~20대는 개인적 요인을 중시하는 데 비해 다른 대부분의 성/연령대는 사회적 요인을 중시함
- ☑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고, 호남이 가장 낮음
- ☑ 직업에 있어서는 화이트칼라는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고, 블루칼라와 은퇴.무직자는 낮은 특징을 보임

□ 남녀 2030세대. '호감' 느끼는 요인 거의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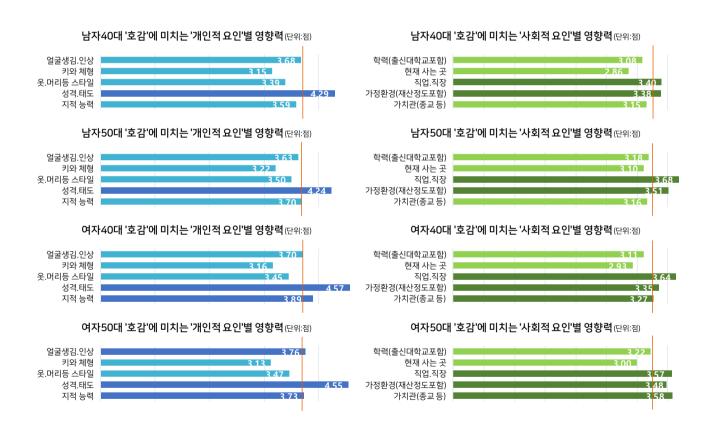
- 성/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남녀 2030세대가 '호감'을 느끼는 요인은 거의 유사함
- 개인적 요인에서는 남녀 2030세대 모두 '성격.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음으로 '얼굴생김. 인상'을 중시하는 공통점을 보임
- 여자 30대는 여기에 '지적 능력'이 추가되는 정도의 차이임
- 그림에서 빨간 세로 선은 국민전체 평균값(개인 3.70점, 사회 3.25점)이고, 국민전체 평균값보다 높으면 짙은 파란색 (또는 짙은 녹색)으로 표시함
- 사회적 요인에서도 남녀 2030세대는 모두 '직업.직장', '가정환경', '가치관' 등을 중요시 여김
- 성/연령대별로 요인별 영향력 점수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3개가 동일함
- 남자 18~20대는 이러한 공통점에서 '가정환경'이 근소하게 덜 미치는 정도의 차이임



- ☑ 남녀 2030세대는 개인적 요인으로 '외모(얼굴생김,인상)'와 '성격(태도)'을 중시하고, 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직업', '가정환경', '가치관'을 중시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
- ☑ 특히 개인적 요인에서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2030세대의 특징적 차이임
 - : 뒷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다른 성/연령대는 '외모'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음
- ☑ 한편, 사회적 요인에서 여자 2030세대는 다른 성/연령대에 비해 '가치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 : 이 점은 여자 2030세대만의 고유하 특징으로, 결혼과 출산·육아 등에 관심과 고민이 '가치관' 중시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4050세대, 남녀는 다르지만 남자, 여자끼리는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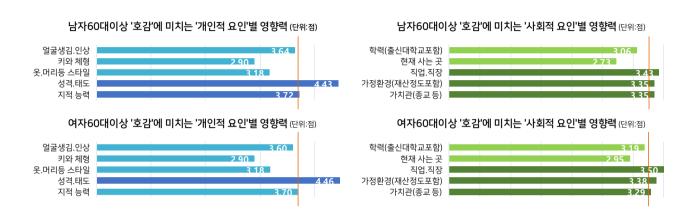
- 4050세대는 '호감'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력이 남녀 간에 다르지만 남자 4050세대는 거의 비슷하고, 역시 여자 4050세대도 유사함
- 남자 4050세대는 개인적 요인에서 '성격.태도'를 중시하고, 사회적 요인에서 '직업.직장'과 '가정환경'을 중시함
- 그림에서 빨간 세로 선은 국민전체 평균값(개인 3.70점, 사회 3.25점)이고, 국민전체 평균값보다 높으면 짙은 파란색 (또는 짙은 녹색)으로 표시함
- 여자 4050세대는 개인적 요인에서 '성격.태도'와 '지적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적 요인 중에서 는 '직업,직장', '가정환경',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함
- 남자 4050세대와 비교해 개인적 요인에서 '지적 능력'이 추가되었으며, 사회적 요인에서 '가치관'이 추가됨



- ☑ 2030세대는 남녀가 거의 비슷한 성향을 보인데 비해 4050세대는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남
-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050세대에서는 '외모' 영향력이 낮아 2030세대와 차이를 보임
 - : 4050세대 중 여자 50대만 '외모'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 ☑ 하편, 사회적 요인에서 남자 4050세대는 '가치관' 영향력이 낮은 데 비해 여자 4050세대는 '가치관'을 중시함
 - : 여자 2030세대만큼 영향력 점수가 높지 않지만 여자 4050세대도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경험을 통해 중요성이 획득된 것으로 보임

□ 60대이상 연령층, 남녀 비슷한 양상

- 60대이상 연령층은 남녀 모두 개인적 요인 중에서는 '성격.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직업.직장', '가정환경', '가치관'을 중시함
- 남자 60대이상은 이러한 공통점에 개인적 요인 중 '지적 능력'이 추가됨



- ☑ 남자 60대 이상은 2030세대와 달리 '외모' 영향력이 낮고, 남자 4050세대와 비교해서는 '성격' 외에 '지적 능력'이 추가되는 차이를 보임
 - : 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남자 4050세대에 비해 '가치관'이 중요 요인으로 추가됨
- ☑ 여자 60대 이상 역시 '외모' 영향력이 낮고, 여자 4050세대와 달리 '지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짐
 - : 사회적 요인은 여자 4050세대와 동일한 양상임
- ☑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호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 간 차이 및 특징이 존재하는 것은 흥미로운 점임

▼ '호감'에 대한 사회심리적 접근

□ '사회적 요인' 중요성 확인 위한 실험 조사

- 다양한 사회실험 결과 사람에 대한 평가(호감 또는 비호감)에 있어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있음
- 이러한 사회심리적 결론이 여론조사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앞서와 같이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별 '호감' 영향력을 조사한 데 이어 다음과 같은 추가 실험 조사를 설계함
- 앞서 조사결과 분석에서 보듯 국민들은 '사회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을 중시하는데, 이는 예측한 결과였음
- 즉, 여론조사에 임하는 국민들은 '당위적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짧은 시간에 응답을 해야 하기에 충분한 고민 없 이 즉자적으로 응답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 여론조사 대상은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뉘고 각각 다음과 같은 다른 질문지를 받음
- A그룹은 사진만 제시하고 호감도 점수를 매겨 달라고 했으며, B그룹은 사진과 더불어 긍정적인 사회배경 요인을 제시 하고 호감도 점수를 매겨 달라고 요청함
- A, B 그룹 모두 인구통계 특성을 맞춰 오차를 최대한 줄임
- 조사에 사용한 사진은 인공지능이 수많은 동양인 얼굴 사진들을 조합한 가상의 인물 사진임

A그룹

선생님은 아래 사진의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이 가세요? 호감이 많이 갈수록 높은 점수를 매겨 주세요.(5점 만점)



선생님은 이래 사진의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이 가세요? 호감이 많이 갈수록 높은 점수를 매겨 주세요.(5점 만점)



B그룹

선생님은 아래 사진의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이 가세요? 호감이 많이 갈수록 높은 점수를 매겨 주세요.(5점 만점)



참고로 이 사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유능하고 성격 좋은, 매력적인 남자"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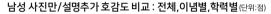
선생님은 아래 사진의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이 가세요? 호감이 많이 갈수록 높은 점수를 매겨 주세요.(5점 만점)



참고로 이 사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유능하고 성격 좋은 매력적인 여자"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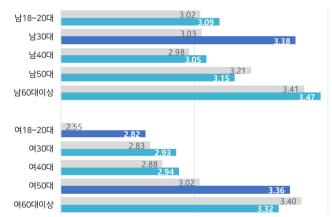
□ 남성 사진, 긍정적 설명 추가 시 호감도 상승

- 조사결과, 사진만 제시했을 때의 호감도는 3.08점이었으나, 긍정적 설명을 추가한 경우 호감도는 3.18 점으로 상승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설명 추가 시 호감도가 상승했으며, 특히 호감도 상승이 높은 계층은 △보수층 △고졸이하. 대학재학 △남자 30대 △여자 18~20대. 여자 50대 △서울. 경기.인천. TK. PK △화이트칼라. 주부. 학생. 은퇴,무직자 등임
- 아래 그림에서 짙은 파란색 막대가 국민전체 차이(0.10점)보다 높은 차이를 보인 계층임
- 한편, 긍정적 설명 추가에도 호감도가 하락한 계층은 △대학원재학 이상 △여자 60대이상 △충청권 △ 블루칼라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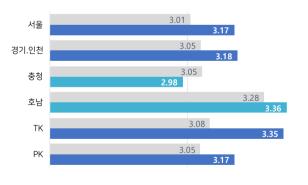




남성 사진만/설명추가 호감도 비교 : 성/연령별 (단위:점)



남성 사진만/설명추가 호감도 비교 : 지역별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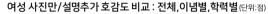
남성 사진만/설명추가 호감도 비교: 직업별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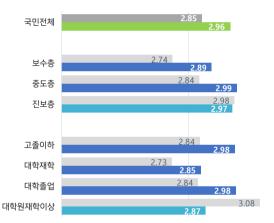


- ☑ 조사설계 시 사진만 제시할 때에 비해 긍정적 설명이 추가되면 호감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예측된 조사결과 가 나옴
 - : 거의 모든 계층에서 호감도가 상승한 것에서 보듯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인 것으로 해석가능함
- ☑ 하지만 계층별 호감도 상승 폭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흥미로운 특징이 발견됨
 - : 보수층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학력이 낮을수록 반응정도가 강함
 - : 남자 30대와 여자 18~20대, 여자 50대의 민감도가 높고, TK 지역과 주부, 학생 역시 민감하게 반응함

□ 여성 사진 역시 긍정적 설명 추가 시 호감도 상승

- 여성 사진의 경우에도 사진만 제시했을 때의 호감도는 2.85점이었으나, 긍정적 설명 추가 시에는 호감 도가 2.96점으로 상승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설명 추가 시 호감도가 상승했으며, 특히 호감도 상승이 높은 계층은 △보수층, 중도층 △고졸이하, 대학재학, 대학졸업 △남자 2030세대대 △여자 18~20대, 여자 50대 △서울, 경기,인천, TK △주부, 학생, 은퇴,무직자 등임
- 아래 그림에서 짙은 파란색 막대가 국민전체 차이(0.11점) 보다 높은 차이를 보인 계층임
- 한편, 긍정적 설명 추가에도 호감도가 하락한 계층은 △진보층 △대학원재학 이상 △남자 40대 △여자 60대이상 △충청권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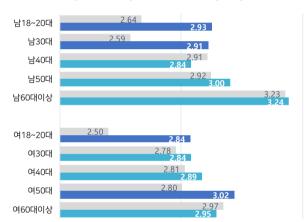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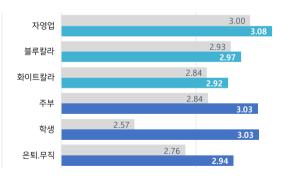
여성 사진만/설명추가 호감도 비교: 지역별(단위:점)



여성 사진만/설명추가 호감도 비교 : 성/연령별 (단위:점)



여성 사진만/설명추가 호감도 비교: 직업별(단위:점)



- ☑ 남성, 여성 모두 사진만 제시할 때에 비해 긍정적 설명이 추가되면 호감도가 상승함
 - : 즉,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사회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기존 연구결과가 확인됨
- ☑ 남성사진, 여성사진 모두 설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통 계층이 있는데, 다음과 같음
 - : △보수층 △고졸이하 △남자 30대 △여자 18~20대, 여자 50대 △TK △주부, 학생 등임
- ☑ 이번 조사결과만 놓고 볼 때 이들 계층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좌우되는 경향이 강한 계층임

※ 사회적 차별 조사결과 : 국민들, 사회적 요인 중시

- 지난 2020년 6월 7일, 케이스탯은 사회적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함
- 구체적으로 직업, 학벌, 나이, 돈, 성, 고향, 노인 등 사회적 차별 요인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동의여부를 조사함
- 조사결과 거의 모든 주장에 대한 동의도가 50%를 넘어.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사회적 차별이 심각하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만 동의도가 31%를 낮게 조사됨



사회적 차별 관련 주장별 동의도 : 국민전체(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Kstat Point

☑ 위 조사결과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7호 『차별과 배제 관련 국민의식 분석』(2020년 6월 11일자) 참고

31

- ☑ 그간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조사설계 및 설문문항 작성 시 당위적 응답을 배제하고, 응답이 편향되지 않도록(바이어스 차단) 중립적 설문을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의 여론조사 업계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공경하지 않는다

- ☑ 하지만 여론조사에 임하는 응답자의 심리적 요인과 특성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함
- ☑ 특히 최근 들어 행동경제학으로 대표되는 심리학의 발전과 이에 자극받은 사회심리학계의 다양한 연구성괴물을 여론 조사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 케이스탯은 이러한 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사회심리적 조사실험을 지속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정확한 조사방법과 과학적 분석 기법을 마련해 나갈 것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케이스탯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7월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와 사회지표는 7월에도 목요일에 발간됩니다.

